

Wars and Rumors of War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April 18, 2024

Aloha MPC ‘Ohana,

Ever since Hal Lindsey published the book *The Late, Great Planet Earth* back in the 1970s, there has been a chorus of (mostly fundamentalist, mostly American) Protestant pastors and pundits who have been inclined to say (often very loudly) that various current events in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are part of some unfolding “end times” chain of events, which they assert is “foretold” in the Bible and particularly in books like Revelation, Daniel, and Ezekiel.

For the record, Revelation, Daniel, and Ezekiel are probably three of my most favorite books in the Bible. I humbly believe that I’ve studied those books probably more than the average bear, and I can say without a doubt that my faith has been shaped and inspired by the God-given visions which those books so powerfully describe.

But I, for one, do not honestly see any pre-set, unalterable “end times” sequence of events clearly spelled out in any one of those books (or in any combination of them). To the contrary, I humbly think that to read books of Biblical prophecy in that way is actually to misconstrue the nature of prophetic language and the nature of visionary material, and so to actually fail to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2 Timothy 2:15).

And I humbly feel, likewise, that it is important to say that, as a Christian who’s committed to the truth of scripture, because this is more than some esoteric issue. To the contrary, a great many Christians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have been and continue to be taught to see Biblical “prophecy” in this way. And so, when there’s a war in Gaza or when Iran fires missiles at Israel, all sorts of time and energy (and anxiety) get devoted to speculation about how these kinds of events “fit” into some “prophetic timeline” – even though Jesus himself clearly warned his followers *not* to get distracted by speculations of this very sort (see Mark 13:5-8).

For the record, mainstream Christianity *does* believe that, “Christ has died, Christ has risen, and Christ will come again.” We do believe in a final return of Christ, to make all things new, at the consummation of history. And scripture does teach that there will be much “tribulation” (for a lot longer than seven literal years) before that happens.

But rather than trying to puzzle out the timing for any of that stuff (a task which Jesus said was impossible), I believe Martin Luther had a much better (and actually more Biblical) idea. Luther was once asked what he would do today if he knew for a fact that the world would end tomorrow.

“If I knew for a fact that the world would end tomorrow,” Luther replied, “I would plant a tree today.”

I don’t know when the world will end. I don’t even know how the war in Gaza will end (although I pray fervently for a just peace there every day).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next between Israel and Iran (although I pray for peace there too and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What I do know is that there are good, credible Christian organizations which are hard at work right now, trying to bring humanitarian aid to those who are suffering as a result of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There are a lot of people presently in harms’ way trying to deter further aggression, including U.S. military personnel deployed to that part of the globe. There are diplomatic and other efforts underway to try to stave off a further escalation of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 and in many other “tinder box” places on earth too. And I know that none of that is easy. And so I know that I need to pray and try to make a difference, as best I can, in my own small way. Because I would rather sow seeds of hope and healing, peace and justice, however small, than I would seeds of fatalism or fear.

To me, that approach is much more faithful, much more responsible, and much more Biblical, frankly, than indulging in any sort of ghoulish speculation about “the countdown to Armageddon,” etc. And I say that, directly but humbly, believing that “I too have the Spirit of God” (1 Corinthians 7:40).

Me ke aloha,
Pastor Ron

전쟁과 전쟁의 소문: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Hal Lindsey가 1970년대에 _The Late, Great Planet Earth라는_ 책을 출판한 이후로, 다양한 시사 문제가 다음과 같이 (종종 매우 큰 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대부분 근본주의자, 대부분 미국인) 개신교 목사와 전문가들의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중동(및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전개되는 ”마지막 때”의 일부이며, 그들은 이 사건이 성경, 특히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책에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은 아마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 권의 책일 것입니다. 나는 아마 보통의 꿈보다 더 많이 그 책들을 연구해 왔다고 겸손히 믿으며, 내 믿음은 그 책들이 강력하게 묘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의해 형성되고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들 중 어느 책(또는 그 조합)에서도 명확하게 설명된 사전 설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종말 시간” 사건의 순서를 솔직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성경의 예언서를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실제로 예언적 언어의 본질과 환상적 자료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디모데후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겸손히 생각합니다. 2:15).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성경의 진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난해한 문제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그리고 다른 곳)의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예언”을 이런 식으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모든 종류의 시간과 에너지(그리고 불안)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어떻게 ”예언적 시간표”에 ”적합”하는지 추측하는 데 바쳐집니다. 그 자신은 추종자들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추측에 현혹되지 _말라고_ 분명히 경고했습니다(마가 복음 13:5-8 참조).

참고로, 주류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_믿습니다_.

우리는 역사가 끝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환난”(문자 그대로 7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의 시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작업) 마틴 루터가 훨씬 더 나은(그리고 실제로는 더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루터는 세상이 내일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나무를 심겠다”고 대답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곳의 정의로운 평화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비록 나는 그곳의 평화와 열방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중동 분쟁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해당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포함하여 추가 공격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기타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많은 ”부싯깃 상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운명론이나 두려움의 씨앗보다는 아무리 작더라도 희망과 치유, 평화와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접근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아마겟돈 카운트다운” 등에 대한 어떤 종류의 끔찍한 추측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훨씬 더 책임감 있고,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적이면서도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니라”(고전 7:40).

나 알로하,
론 목사